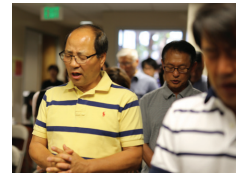


주안에게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Apr. 2015
Vol.3 No.4

- 부활절 예배
- 24hr Witness 전도훈련
- 바자회 / 주안에만남
- 교구 / 사역국 탐방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모든 성도가 예배자로 참가한 부활절 예배

2015년 부활절예배의 전체적 구상은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전 성도가 예배자로 참여하여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한다는 취지에서 준비하였다.

오프닝 영상, 음악과 함께 EM/한어청년부에서 바디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주안예교회 부활절 예배는 시작되었다.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지하고 섬세하며 때로는 강력하고 화려한 동작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액션과 고백,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하는 율동과 함께 소개되는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을 바꾼다는 영상 메시지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강하고도 깊

어린 자녀들부터 어른까지 저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은 인상을 주었다. 영상메시지를 소개하면, If you don't have the resurrection you don't have any gospel.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없습니다. Jesus Christ is alive.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And when they went out to the tomb that morning, They heard the greatest news the world has ever known, 안식 후 첫날 아침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He is not here He is risen.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 나셨느니라" He is alive today. 오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And the thing that inspired the disciples to turn the world upside down was the resurrection. They went everywhere declaring, "Jesus is alive!"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도록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부터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You know some of us Christians live as Jesus is dead,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He is not dead, He is alive.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 8면에 계속 >





MAY
MINISTRY
CALENDAR

2015년 5월
목회계획표



목회부

- 5/3(주일) 구역모임
- 5/7(목) 전교인 기도회 (세리토스채플)
- 5/8(금) 전교인 기도회 (밸리채플)
- 5/10(주일) 어버이 주일
- 5/17(주일) 주안에만남 (밸리채플)
- 5/21(목) 교구장모임 (세리토스채플)
- 5/22(금) 교구장모임 (밸리채플)

평신도사역훈련원

- 주안에만남 (18주)
기간: 2/2 ~ 6/5, 7:45pm
- 주안에만 (18주)
기간: 2/1(주일) ~ 6/14(주일)

밸리채플 체육국

- 탁구모임:
매주 수요일 7:30pm (친교관)
- 배드민턴모임: 매주 주일 12:30pm
매주 화, 목요일 7:30pm (친교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가슴앓이’가 시작되다

1. 주안에 24HR WITNESS의 개요

24HR WITNESS는 주안에 교회가 실천해 나갈 전도운동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사는 삶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전도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주안에교회도 항상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고전10:31). 식당에 가던, 마켓에 가던, 여행을 하던 영혼구원을 위해 힘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빌1:8).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영혼 구원이고 우리는 이에 빛진자들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찾아드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2. 관계중심 전도운동의 개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의 전도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중심의 전도는 아주 중요하고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관계 전도를 위해서는 1.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어 내 삶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전도 대상자

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실천합니다. 교우들이나 구역원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도와주십시오. 3.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전도는 영적전쟁으로 기도는 성공적 전도의 필수품입니다. 4. 전도 대상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갖도록 합니다. 5. 전도 대상자를 구역, 나아가 교회로 인도합니다. 6. 복음을 전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3. 주안에 24HR WITNESS 실제

(1) 주안에 24HR WITNESS의 FLOW CHART

(2) 주안에 24HR WITNESS 매뉴얼(그룹전도)

1) 관계자 분류하기: 관계자를 친한 순으로 분류하고 친한 사람부터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관계 형성하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일보다 관계를 중시해야 합니다. 위로자가 되시고 대화의 기술을 개발하십시오. 칭찬을 많이 하고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십시오. 불신자들과 시간을 많이 갖고 공통점을 찾아 활용하십시오.

3) 접촉(초청)하기: 식사에 초대하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형식, 전통, 고정관념을 깨시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상대를 배려하시고 인내와 기다림을 가지고 품으십시오.

4) 교회에 인도: 성장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전도입니다. 사탄의 방해를 예측하고 태신자와 교회의 일정을 함께 하십시오. 교회에 등록하도록 돕고 교역자와 연결해 주십시오. 새가족 교육을 챙겨주시고 구역에 정착하도록 도우십시오.

(3) 태신자와 관계 맺는 방법

개인적으로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경조사를 챙기십시오. 베푸는 자세로 편의를 봐주고 취미생활을 함께 하십시오. 자녀교육도 돕고 계속 접촉하십시오.

(4) 전도 시 유의사항

1. 자신의 생활방식을 점검하십시오. 2. 전도에 대한 두려움과 핑계를 버리십시오. 3. 관계의 성공이 전도의 성공임을 기억하십시오. 4. 진심어린 격려와 위안을 주는 대화를 하십시오. 5. 칭찬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6. 태신자에 맞춰 효과적으로 접근하십시오. 7.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8.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가슴앓이 전도가 이제 주안에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전도운동은 숫자 늘이기기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운동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가슴앓이가 24HR WITNESS의 본질입니다. | 정리: 조성운 기자 |



■ 주안에 만남

서먹서먹함 날려보내고 '행복한 주안에 가족'



2014년 전반기 세리토스 채플 주안에 만남이 24분의 성도님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채플에서 있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도 있듯이 역시 주안에 만남도 식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디저트로 식탁에 준비된 과일은 먹으라고 차려놓은 건지, 보고 감상하라고 차려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쁜 색상으로 조화된 과일 발에 실어진 아름다운 꽃이 환한 미소로 새 교우님들을 맞이합니다. 작은 과일 접시이지만 그 안에 담긴 새가족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상마다 놓여진 꽃하며, 형형색색의 꽃, 예쁘게 접힌 냅킨까지 여러분의 깊은 사랑을 진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식사는 일품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굽고 무치고 데치고... 재료 준비부터 요리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과 사랑이 들어갔는지 음식의 모양에서 맛까지 흠뻑 들어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목사님과 사진 촬영이 있었습

니다. 목사님을 가운데 모시고 부부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밝은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 뒤에서 예수님께서도 환한 미소와 함께 여러분들을 꼭 안고 같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너무도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들의 사진 배경에 꼭 나올 겁니다. 이어 영상으로 교역자들과 시무장로님들의 인사를 소개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을 뵙고 인사를 해야 하는데 사정상 영상으로 인사를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괜찮습니다. 매일 교회에서 만나고 오늘 아침에도 인사했잖아요. 이어서 평신도 사역 훈련원(평사원) 이정미 집사가 주안에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알차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검증된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

다음 순서가 새가족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 거주지역, 가족사항, 좋아하는 음식, 교회에 오시게 된 동기 등... 돌아가며

본인을 소개한 뒤 참가자 모두는 좀 더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최혁 목사님으로부터 주안에교회의 목회비전을 듣는 순서였습니다.

목회비전은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 둘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넷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제자화하는 교회임을 설명하시고, 가장 첫째이고 중점을 두는 것이 말씀과 예배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기타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성도님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관심과 질문이 많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후에 목사님의 기도와 함께 주안에 만남은 종료 되었습니다. 주안에 만남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안에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섬기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시기를 기대합니다.



■ 세리토스 6교구

우리 교구 모습, 주안에교회의 미래

구승환, 신옥 집사 부부가 교구장으로 섬기시는 세리토스 6교구는 유별나게 여자 분들이 많은 교구입니다. 그래서 교회 뒷정리도 다른 교구와 함께 해야 하지요. 그렇지만 우습게보면 안 됩니다. 힘은 없지만 그 대신 사랑만큼은 어느 교구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많거든요. 거기다 2구역장인 최진선 집사님은 미녀들이 제일 많아 미녀 교구로도 알려져 있다고 자랑합니다.

4월 5일 부활절 예배를 은혜롭게 마치고 저녁에 1구역장으로 수고하시는 양창호, 지혜 집사님 가정에서 1구역과 2구역이 함께 모여 12명의 구역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역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승환 집사님의 인도로 오 늘은 헌금과 십일조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최진선 집사님은 얼마 전 딸이 십일조에 대해서 질문을 해온 적이 있는데 그 때 설명을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들었다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실 때 그 때 해야지, 생각하고 계산하면 은혜가 줄어든다고 구승환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서기자 전도사님은 십일조는 내가 수고한 것의 십의 일을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하십니다. 믿음의 베테랑들이어서 인지 헌금이라는 어려운 주제인데도 넘치는 은혜 가운데 구역 공과를 마쳤습니다.

예배 후에 푸짐한 저녁 식사를 나누었는데 오늘 식사는 박병수, 기순 집사님 부부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두 주전 결혼한 아들 턱으로 내시는 건데 그래서인지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광어회에 매운탕, 갈비찜이 두 종류, 복초이 김치에 멧개 등등 무엇을 먹을까 고민해야하는 정도였으니까요. 영의 양

식을 듬뿍 먹고 육의 양식까지 듬뿍, 오늘은 먹을 복이 있는 날이네요. 식사를 함께 하며 나누는 정겨운 이야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푸짐하게 나누어진 식탁이었습니다. 세리토스 6교구는 말씀과 기도만 있는 교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더 많은 교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치우는 것과 설거지를 서로



그 가운데 10%만 하나님께 다시 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구승환 집사는 15년 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 와 마켓을 시작하는 데 첫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첫째로 하나님께 정직하고 둘째는 정부에 정직하고 셋째는 손님에게 정직하고 넷째는 본인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셨다는군요. 그 말씀을 붙잡고 정직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켜주셔서 은혜로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승환 집사님은 적용에 나오는 지갑의 회심이란 말은 물질, 세상 중심에서 말씀, 예수 중심으로 바꾸라는 뜻이라고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서기자 전도사님은 존 웨슬리는 소득의 90%을

싸우면서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또 놀란 것은 후식으로 과자와 과일이 나오는데 주식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스 바까지, 역시 섬김과 봉사로 뼈가 굳은 여성 파워를 실감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온 식구들이 모여 4월 중순 목요일 영성예배 때 드릴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곡은 '사철에 불바람 불어있고'입니다. 찬양 연습을 하는 동안 저는 6교구를 통해서 주안에교회를 보고 주안에교회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런 사랑과 나눔이 구역을 넘어 교회로, 교회를 넘어 사회로 풍성히 넘쳐나고 앞으로도 계속 넘쳐날 것입니다. '사철에 불바람 불어있고' 찬송을 저는 지금까지 과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그런 곳을 보았습니다. 세리토스 6교구입니다. 집으로 가는 제 집사람 눈가에 반짝이는 보석이 달렸습니다. | 조성운 기자 |

교역자를 소개합니다

박현동 목사
(목회,교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의 어린 시절은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많은 질문들이 내 마음을 두드리게 되었고 결국은 그 동안 내가 믿고 있었던 부분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말씀을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거듭될수록 주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한 번 확신했고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라는 단어로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나의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위한 삶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뒤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너, 우리라는 공동체로 생각의 터를 넓혀가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서로 다름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의 뒹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눈을 뜨니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이 영혼의 대한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데살로니가전서 2:19-20 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나라"라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다시금 영혼에 대해서 기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다'라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섬기려 합니다. 언제나 그 마음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살아 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 선교구제를 위한 바자회

Share in Christ



벨리채플 권사회 주최 바자회가 4월 11일과 18일 토요일 열렸다. 성도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생필품과 의류를 비롯해 다양한 재활용을 기부 받아 필요한 사람들과 저렴하게 나누고 기금을 마련하는 행사에 권사회 회원들을 비롯해 여러 봉사자들이 한달여 간 땀 흘려 준비했다. 김치와 밑반찬은 물론 호떡과 떡볶이, 김밥 등 맛있는 간식도 마련 큰 인기를 끌기도. 이른 아침부터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찾아 추억의 시골장터 같은 정겨운 모습을 보였다.



■ 부활절 맞이 사진전

Rejoice in the Lord



1



2

부활절 맞이 'Rejoice 사진전과 콘테스트'가 열렸다. 주안에교회 각 교구별 가족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서로 소개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서 저마다 개성있는 아이디어와 행복한 모습을 담아 출품했는데, 심사위원을 따로 두지 않고, 전시작품들을 감상한 성도님들이 각자 의견에 따라 좋은 작품에 스티커를 부착해 집계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사진전에서 입상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사랑상: 벌리채플 1교구(1번 사진), 3교구(3번 사진), 믿음상: 세리토스채플 7교구(2번 사진), 소망상: 벌리채플 13교구(5번 사진), 특별상: 에코하이킹 클럽(4번 사진)

한편 주안에교회 창립 후 교회행사와 교우들의 모습을 담은 수천장의 사진들을 각 채플별로 인화해 전시하고 본인들도 모르게 나온 사진들을 찾아내 떼 가는 시간도 가졌다.



3



4



5



■ 사랑성가대(벨리)

찬양할 수 있어 감사, 섬길 수 있어 기쁨

주일 오후 1시가 조금 지난 시각 교회본당에서 기다리는 사랑성가대 40명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였고 잠시 인터뷰를 하였다. 마음은 여고생의 청순함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으로 단련된 진정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카리스마와 열성으로 뭉쳐진 사랑성가대는 지휘자 황영옥 권사와 함께 뽀뽀 뭉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성가대이다. 지휘자로 수고하는 황영옥 권사는 어려서부터 찬양을 접하고 사랑하였으며 “미국 이민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찬양을 통하여 힐링을 받았고 처음 성가대를 시작할 때는 대원들이 악보도 몰랐지만 사랑으로 주안에 교회 여성 어르신들이 항상 웃음으로 기쁨으로 열심이 찬양하시는 모습이 가르치는 저로서도 너무나 아름답고요 또 그 열심에 참 감사하고 같이 무슨 일이 있든지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도 함께하며 주님을 찬양하기에 너무 너무 기쁘다”고 하였다. “사랑성가대는 참여를 원하시는 여성분이면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으며 악보나 혹은 발성은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정말 추천합니다. 어르신들은 어느 부서에서도 봉사할 기회가 없지만 찬양팀에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더 열심이 합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며 기뻐했다. 총무 이양자 권사는 “매주 예배가 끝나고 12시부터 1시까지 405호실에서 연습



합니다. 특별할 때는 다과도 준비합니다. 더 많은 대원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알토 전지연 권사는 “사랑성가대는 사랑이 많고 오래되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지만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화음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지휘자님께서 헌신을 다하여 잘 도와주셔서 웃을 일도 많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좋은 성가대입니다, 그리고 매쉬포테토가 맛을 내는 것은 못생긴 감자나 잘생긴 감자가 꼭 썰서 함께 어울려져 맛이 있는 포테이토가 되는 것처럼 그런 맛으로 실력으로 지휘자님이 가르쳐줍니다. 너무 좋아요”라

고 하였다. 소프라노의 박금자 권사는 “사랑성가대가 있으므로 교회 예배 후 말씀의 연장으로 찬양을 열심이 연습하고 갈 때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누구나 오시면 쉽게 찬양을 하실 수 있게끔 지도합니다. 많이 오세요”라고 하였다. 반주자로 수고하는 구자형 집사는 “세상의 명예를 떠나서 우리 어머니 어르신들께서 서툰 찬양이지만 그래도 항상 봉사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어머니 구옥순 권사님이 오셔서 봉사도 하지만 열심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나는 황권사님을 볼 때 더 열심이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국장인 이용화 권사는 “연세를 초월하여 찬양을 좋아하고 열심이 찬양하기를 원하는 여성분들의 모임입니다. 애나하임에 있는 로렐장로교회에서 2월 28일에 있었던 찬송가 페스티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 언제든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 여성찬양대입니다. 더 많은 대원들이 함께 조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요”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인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이며 하나님의 딸들이 나이를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모습을 볼 때 주안에교회에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임하리라 믿는다. | 공태용 기자 |



〈1면에 이어서-부활절 예배〉
이어서 바다위십팀, 초등부 학생들과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성우 전도사와 함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아름다우신,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등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다음 순서는 기도에 이어 성가대의 찬양이었다. 벨리채플에서는 연합성가대로 구성되었고, 세리토스채플에서는 마하나임 성가대가 ‘살아계신 주’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파스텔톤의 다양한 색상의 복장으로 준비하여 더욱 멋진 찬양의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화려하지 않지만 지적이고 단아한 모습, 절제된 감격과 기쁨의 표현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마지막 순서가 장로님들로 구성된 단막극

(skit)이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과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슬픔(sorrow), 욕심(greed), 두려움(fear), 미움(hate), 스트레스(stress), 교만(pride)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힘들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joy), 관대(giving), 담대(security), 사랑(love), 평안(peace), 겸손(humility)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무언으로 나타내는 메시지였다. 이어서 목사님의 설교가 진행되었고 전체적으로 부활절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격의 예배로 진행되었다. | 김경일 기자 |

예수님이 밟으셨던 땅, 말씀의 현장 가슴 뭉클

■ 성지순례기/
이스라엘(2)

지난 3월호에 제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배우고 왔는지를 소개했습니다.

아직도 현실적으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시간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성지순례를 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가족의 후원에 힘입어 꿈에도 그리던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늘 막연하게 생각 되었던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과 구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명들과 성들을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지면을 통하여 이번에 성경현장학습을 통하여 순례하였던 곳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면으로 설명한들, 몇 장의 사진을 본다고 해서 약간의 공감은 가지시겠지만 글을 통하여 얻을 수 없는, 직접 내가 성경의 땅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음을 금번 탐방을 통하여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녀온 후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성경 속의 그 지명과 사건들이 머리에 그려지고 눈에 속 들어 옵니다. 이스라엘 땅의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지역들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왔으니 제 머릿속에, 눈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성서지리원에서 10만 불을 투자해서 제작한 이스라엘 땅의 40만분의 1 입체모형도를 구입하여 매일 드려다 보고 있



자니 아직도 그 곳에서 있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성경현장학습 중에 지금도 그리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광야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방의 여러 성들과 갈릴리 바다에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개방된 막달라 회당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회당은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곳이고 입구를 통해 회당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을 것인데 제가 바로 예수님이 밟으셨던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다는 것만

으로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에게 강하게 여운이 남아 있는 곳은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한 유대광야의 모습입니다.

이주섭 목사님이 저에게 유대의 광야에 나가 있으면 묘하게 마음이 평안해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살 때도 힘든 일이 생길 때 차를 몰고 유대 광야로 나가면 너무나 마음의 평강이 밀려온다고 했는데 나도 유대 광야를 여러 번 가보니 너무나 아름답고 심령이 평온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 한포기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의 인생이지만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늘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닌지요. 유대 광야를 직접 가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성경의 땅 이스라엘은 꼭 다녀오셔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10회 정도 더 다녀올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묘한 감동이 있듯이 성경의 땅 이스라엘도 갈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방문할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서지리연구원을 통하여 가면 좋겠습니다. 계획하고 행동하는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한번 성경현장학습을 다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영웅 목사

coway



- * Bidet
- * Water Purifier
- * Air Purifier
- * Water Softener

황은숙 (Deborah)
Pro HP
COWAY USA INC.
Cell : (949) 874-8825
Fax : (714) 739-4354
7800 Commonwealth Ave. #201
Buena Park, CA 90621
www.coway-usa.com



NU SKIN.
THE DIFFERENCE DEMONSTRATED™



PHARMANEX™
A Natural HealthCare Company

이 사 라

Suk Lee
US 9636650
Franchise Consultant

3700 Wilshire Blvd, #265 L.A.CA
Cell : 818.648.1224
E-mail : sarah27814@gmail.com



주안에
교우

비즈니스
소개

May Queen

Helen
원장

Cell: 562.315.3090

BUS. HOURS:
9:00am - 7:00pm
전화예약 바랍니다.

Tel: 714.228.9001
6772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

**Flower Factory
/ Uptown Nursery**



과일나무
실내 식물
정원 나무 • 정원 공사

Tel: 213.382.9777 • 213.389.1388
E-mail: oaksfastfoto@hanmail.net
294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 문학과 삶

아득한 유년기의 회상, 이민자로서 애잔함이...

등을 등단시킨 장본인인 시인 정지용은 1902년 충청북도 옥천군 출생으로 섬세하고 독특한 언어를 구사하여 한국 서정시의 새 지평을 연 시인으로 평가받는다. 이 시에서 그는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과 풍경들을 섬세하고 선명하게 마치 풍경화를 그린 것처럼 표현하였다. ‘향수’는 정지용의 초기시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절실하게 노래한다. 14세에 고향을 떠나 서울과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지녔을 터, 그의 시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 작품은 고향을 떠난 자아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느껴지는 서정시다. 이 시는 모두 다섯 부분으로 나뉘는데, 각 부분마다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는 연이 먼저 나오고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라는 독백으로 이어짐으로써 간절한 그리움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싶은 시인의 심경을 절실하게 나타내준다.

1930년대에 쓰여져 오늘날까지 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토록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이 시에 묘사된 고향의 정경과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의 모습이 한국인이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정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참신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들로 형상화한 더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어휘 선택에 감탄한다.

이 시 전반에 그려진 고향의 모습은 비록 단편적이지만 한결같이 사실적이고, 고향의 원형을 고스란히 살려내고 있다. 실개천이 흐르고 얼룩백이 황소가 금빛 울음을 우는 평화롭고 아늑한 곳, 또한 늙으신 아버지가 살고 있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 그런가하면, 유년 시절의 꿈이 깃들인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어린 누이와 아내의 고단한 일상의 담담한 아름다움, 그래서 고향은 초라하지만 정겨운, 사랑이 넘치는 그리운 마음의 고향! 아! 그러니, 그곳이 차마 꿈



향수 (정지용 시 / 이동원 박인수 노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 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뷔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줄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림어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썩 이슬에 함추를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傳設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 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렁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밭 벼은 안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하늘에는 석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웅,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엔들 잊힐리야...

겨울밤에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정겨운 모습과 아울러 ‘질화로, 재, 뷔인 밭, 밤바람 소리’ 등은 어휘의 마술사처럼 유년의 회상을 강하게 환기시켜주는 촉매가 되면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소년시절이 아프게 떠오른다. 이 소년시절을 시인은 흙과 하늘의 대조 속에서 ‘화살을 쏘는’ 상징적인 행위로 그려 넣었다.

연이어 다시 가족사적인 풍경이 살아나면서 ‘누이’와 ‘안해’에 대한 그리움이 모성적인 따뜻함과 편안함으로 이어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현재와 연속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않는다. 마지막 연에서 드러나는 ‘석근(성근) 별, 모래성, 서리 까마귀, 초라한 집웅(지붕), 흐릿한 불빛’ 등의 대응 속에는 이제 추억 속에서만 살아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비애감이 담겨져있다. 이와 같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 표현한 <향수>는 일제강점기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시인의 아픔과 비애는 잊고 그 아름다운 시어들에 담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고향을 눈을 지긋이 감고 음미한다. 고국을 떠나 타향살이 반세가 되어가는 이 미국땅에서 바라보는 밤하늘이 오늘따라 참 외롭다. “하늘에는 석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통기타 가수 이동원과 테너 박인수님의 ‘향수’를 들으며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 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아! 그림다. 우리가 두고 온 고향. 우리 각자 다르긴 해도 그곳이 참하(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서미숙 기자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교우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마련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323) 810-9853, icccnews123@gmail.com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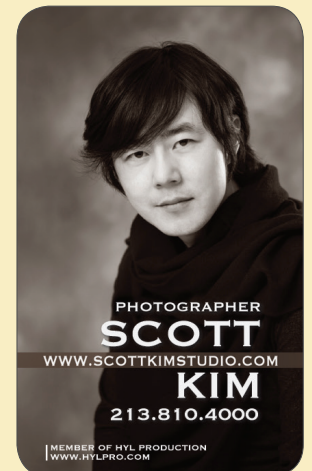
Sang B. Kwon 권상복
sangbkwon@gmail.com
CA Ins. Lic #0H59734



Certified
Insurance
Agent
공인 에이전트

Cell. 213.713.9191

- 생명보험
- 건강보험
- 은퇴연금
- 사업체보험
- 주택보험
- 자동차보험



■ 추천도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찾기

“서양에서 아우슈비츠의 비극이 이후 신학의 가능성을 고민하게 했다면,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과연 신학은 가능한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 책은 그 고뇌의 성찰을 한 땀 한 땀 뜨개질하듯 기록한 책이다.”

세계는 고난으로 가득한 무대이며, 인간은 슬픔의 분칠을 하고 번뇌의 옷을 입고 연기하는 배우와 같다. 인간은 고난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련하고 연약한 존재다. 그런데 교회는 오랫동안 모든 고난에는 숨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것을 가까이 받아들이고 순응하라고 가르쳐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소위 신정론이란 이름하에 신을 변호하기 위한 다양한 논리와 장치들을 개발했다. 하지만 신정론의 우산 아래서 하나님은 변호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역사적 존재인 인간은 소외되기 일쑤였다. 더욱이 통속적인 기독교 신앙은 모든 고난을 신의 뜻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오히려 사랑과 자비의 신을 피조세계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우주적 독재자로 전락시키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성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왔다.

이 책은 엄연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지, 하나님과 고난 받는 세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현대신학의 이해와 고민을 좀 더 대중적인 논리와 언어로



그날,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저자: 박영식

풀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변호할 뿐 아니라 고난 받는 인간의 현실에 대한 따스한 시선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특별히 이 책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과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변증법적으로 풀어냄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실존적 고난을 넘어서서 사회역사적 고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한 깊은 사유와 고민의 방향성을 제공한다.

서구에서 아우슈비츠의 비극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미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가능하게 했다면, 이제 한반도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과연 기독교 신앙이 정당하고 지속가능한가를 질문해야 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시도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는 작품이다.

저자 소개/ 박영식

인천에서 태어나 울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직신학(Th.M.)을 공부하고, 독일 빌레펠트 베텔신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Dr.theol.)를 받았다. 서울신대를 비롯하여 한세대, 계명대, 영남신대 등에서 강의했고, 현재는 서울신학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섬기고 있다.

종교신학을 비롯해 신정론, 신학과 과학의 대화, 철학적 신학, 신학방법론, 창조론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이며, 이와 관련한 다수의 논문을 썼다. 저서로는 Konvivenz der Religionen(Frankfurt, 2006), 『고난과 하나님의 전능: 신정론의 물음과 신학적 답변』(동연, 2012)이 있고, 공저로는 『성경교회신학』, 『기독교 이해』,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기독교 이야기』가 있으며, 공역으로 『몰트만 자서전』이 있다. <출처: yes24>



과수원 가꾸기

암을 예방하려면 항산화 뛰어난 과일을

나형철 장로 (업타운 너서리 운영)

우리 몸에는 활성산란 물질이 있는데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과정이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성됩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침투한 병원균들을 죽이는 좋은 일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피해를 끼치는데 우리 몸의 각 기관을 돌며 세포들을 괴롭혀 각종 암과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신장염 같은 질병을 유발하고 우리 몸이 노쇠하고 주름이 생기는 노화현상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해로운 활성산소의 피해를 줄이려면 과식을 피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도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려면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됩니다. 너무 쉽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원리는 너무 요묘해서 이런 해독 물질

도 간단히 해결하게 해 주시지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다시 말해 항산화 작용을 하는 과일은 블루베리와 호도같은 견과류가 특히 좋고, 채소류 중에는 토마토와 당근이 좋습니다. 이들 중 암도 예방하고 맛도 좋은 블루베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블루베리>



1. 효능

뼈를 튼튼하게 함, 혈압을 낮게 유지시킴, 혈당을 적정치로 유지시킴

2. 재배방법

- 남가주에서는 12~1월이 심기 적합한 계절
- 물이 잘 빠지는 산성 흙에서 잘 자람
- 물을 자주 주도록 하고 가지치기는 조금만 하면 됨
- 비료는 산성비료를 주도록 하고 블러드밀(blood meal), 휘시 밀(fish meal), 본 밀(bone meal), 커피 같은 찌꺼기 등이 좋으며 너서리나 홈디포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음

3. 남가주에 적합한 품종

- Southmoon, Sharpblue, Oneal 등.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 I'd rather have Jesus

이 찬송은 원래 복음성가였는데 찬송가에 입적하게된 특별한 곡입니다. 지난 주일(4/26) 찬양 시간에 뜨거운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열창했던 여운이 아직도 잔잔히 남아 있습니다. 그 날 성도들과 함께 이 찬송을 부르다 특이한 점을 발견하고 제 나름대로 의미를 새겨 보았습니다.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의 ‘것’ 음(音)이 낮게 진행되다 갑자기 한 옥타브위로 높이 올라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뜻이라고 해석 하였습니다. 귀한 ‘것’ 세상의 부귀로 얻는 기쁨보다 기쁘고, 어떤 세상의 명예보다도 명예로우며, 그 어떤 세상의 행복함 보다 행복한 것. 바로 그 ‘것’이 그리스도이기에 곡을 쓸 때 한 옥타브 높게 설정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곡자 ‘조지 베버리 셰아’(George Beverly Shea 1909- 2013)는 한때 돈과 명예가 약속된 인기가수를 택할 뻔 했으나, 이 성시(聖詩)에서 큰 감동을 받아 세상 것을 뒤로한 채 평생을 전도현장에서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목사와 함께 복음성가만을 부르며 하나님을 주신사명을 다한 사람입니다.

1928년 대공황 때입니다. 말바다까지 추락한 미국경제는 실업자들을 속출시키고 사회는 말할 수 없이 혼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학던 대학(Houghton College)에 다니던 조지에게 아버지로부터 편지 한 장이 왔습니다. 가정형편상 학교를 중단하고 아버지의 친구이자 보험회사 사

장인 해롤드비즈(Harold Vaege)를 찾아가 일년 동안 학비를 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지는 아버지의 제안대로 뉴욕 상호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 방송국 편성부장인 프래드 알렌은 조지의 뛰어난 노래실력에 크게 탄복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NBC스튜디오에서 1,500명의 방청객과 전국의 청취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라 모세(Go down Moses)”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조지는 상상 외의 큰 호응을 받아 하루아침에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었고, 방송국은 즉각 조지에게 정기 출연을 요청합니다. 조지는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많은 돈을 벌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조지는 부모와 의논을 한 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대답을 보류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술렁거렸고 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때 목사부인인 그의 어머니는 자기가 애송하던 복음 성시를 조용히 그에게 내어 놓습니다. 조지의 어머니는 자식이 방송을 타다보면 여러가지 부와 쾌락에 노출되어 그 만큼 신앙을 멀리하게 되고 끝내는 영적 타락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걱정에서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I'd rather have Jesus’라는 찬송시를 자식에게 건네 준 것입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큰 재물을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 되리, 큰 집과 넓은 땅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

수를 가지리,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원문)

이 성시는 조지를 위해 쓰여 졌음이 분명합니다. 극심한 경제적 침체로 학업까지 중단한 조지는 이 기회를 꼭 잡고 싶었지만 시를 읽고 난 후엔 번민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 교회에서 부를 찬송을 연습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말씀이 있었으니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라는 바로 그 성시였습니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즉흥적으로 작곡을 하게 되었으며 그날 아침에 교회에서 이 찬송가를 불러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곡의 가사는 시카고 나사렛 감리교회 루 밀러 목사의 부인(Mrs. Rhea F. Miller)이 1922년에 작사한 것으로 10년이나 조지의 모친이 애송하던 성시였습니다. 조지는 그 후 라디오 방송국의 제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주님의 종이 되어 50년 동안 노래하는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가 작곡한 이 찬송가가 조지에게 한평생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준 셈입니다. 세계적인 복음가수 ‘조지 셰아’가 굵은 베이스목소리로 이 찬송을 부르면 엄청난 갈채를 받곤 했는데 그 때마다 그는 “이 갈채도 주 예수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간증하였다 합니다.



서세건 기자

“주안에” 2015년 5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공태용, 김경일, 김헬렌, 라형철, 박창신 서미숙, 서세건, 오철호, 이현주, 조성운, 조용대, 조이 메기, 채은영, 최민애, Annie Yun (기자)
안동윤, 브라이언 조, 정인섭, 김다슬 (사진) | 편집디자인: 김은영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세리토스채플 / 오전 9:30, 11:30
밸리채플 / 오전 8:00, 9:45

영성 집회

목요영성집회 / 저녁 7:45 세리토스채플
금요영성집회 /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 새벽 5:30(월-금), 6:00(토)
세리토스채플 / 새벽 5:30 비전채플



-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 비전채플 Vision Chapel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